

## 독거노인의 비애수준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진향<sup>1)</sup>, 최연순<sup>2)</sup>, 박기수<sup>2)</sup>

거제대학교 사회복지과<sup>1)</sup>,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건강과학연구원 및 예방의학교실<sup>2)</sup>

### The Relationship between Grief level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Jin Hyang Lee<sup>1)</sup>, Yeun Soon Choi<sup>2)</sup>, Ki Soo Park<sup>2)</sup>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je College<sup>1)</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Institute of Health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sup>2)</sup>*

#### =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ef level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Methods:** We analyzed data from a questionnaire administered to subjects aged 65 years or older living alone for a 2017 community mental health project in Gyeongnam S city.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s of variables, w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confirmed the change  $R^2$ .

**Results:** When adjusted for education and economic level, grief level had not a direct impact on suicidal ideation. And it was found that interdependent social support was moderating variables in the relationship of grief level and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Conclusions:** There is a need for appropriate programs that reduce suicidal ideation and therefore suicidal action. Moreover, it is especially necessary to enhance interdependent social supports.

**Key words:** Grief, Social support, Suicidal ideation

---

\* Received March 2, 2018; Revised March 14, 2018; Accepted March 21, 2018;

\* Corresponding author: 박기수,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16번길 15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우: 52727)

Ki Soo Park,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816 beon-gil 15 Jinjudaero, Jinju, Gyeongsangnam-do, 52727, Korea

Tel: +82-55-772-8095, Fax: +82-55-772-8099, E-mail: parkks@gnu.ac.kr

##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은 2010년 10.8%에서 2015년 12.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독거노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비율도 2015년 기준 7.4%에 이르고, 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독거노인은 노인부부나 가족동거 노인에 비해 다양한 사회적 자원 획득이 어렵고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기 쉬워[2], 사회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 5,391명의 노인이 자살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살시도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경우 자살시도가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4.9%인데 반해, 노인은 31.8%로 약 6배 이상 높다[1]. 독거노인일 경우 자살위험은 더 높다. Draper[3]는 혼자 사는 노인의 35-62%가 자살생각이 있다고 하였고, 국내의 경우도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에 비해 2-3배 이상의 높은 자살률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독거노인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도 취약하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나 중요한 타자의 사별은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 사건 중 하나이다. 특히, 일생을 함께 해 온 배우자와의 사별은 ‘폭포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홀로 남겨진 노인에게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4].

이처럼 배우자의 상실경험, 가족과 대인관계에서 겪는 소외경험 등은 노인의 자살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며, 심할 경우 노인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5]. 사별을 경험한 노인들은 일반노인보다 암, 심근경색 및 지병 등의 악화로 신체적 문제가 나타나고, 사회적 고립감이나 위축을 경험하며, 이로 인하여 우울과 자살생각 및 자살충동이 높은 특징을 지닌다[6]. 따라서 사별경험 노인은 일반노인에 비해 자살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어, 사별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이고 차별화

된 자살예방 실천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모델(Stress model)에 의하면, 스트레스 사건 하에서 인식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줄여 주고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행동적 반응을 감소시킨다[7]. 즉, 배우자의 죽음은 심각한 스트레스 사건으로 간주되며, 인간관계, 신념체계, 생활방식 등의 여러 자원이 배우자 사별이라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처하는데 영향을 주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별적응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8]. 노인들은 사회적 단절로 인해 축소되는 사회적 관계망에 대처하기 위해 소규모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친밀도를 높이는 적응방법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하기도 한다[9].

따라서 독거노인들에 있어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Fitzpatrick 등[10]은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노인의 사회적 관계를 지속시켜 줌으로써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노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울증을 극복하게 하여 자살억제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상실을 경험한 이들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정서변화를 느끼고, 이것이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노년기 배우자의 상실은 삶의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를 잃고,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부재는 다시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로 이어져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11]. 따라서 사별경험을 가진 노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긍정적 정서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12].

이처럼 사회적 지지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감과 자살생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왔으나, 사별경험으로 인한 비애수준과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추가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통합적이고 실증적인 검증을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기존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를 주로 가족의 지지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가족 간의 영향력이 약해져 가는 현재 사회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상호작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 사회지지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가족친구의 영역과 상호의존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인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중 하나인 사별경험에 따른 비애감이 이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진의 자문을 받아 경남 S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체계를 수립하고자 지역내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임의로 추출하여 실시한 자료중 개인 정보(주소, 생년월일)를 제외한 자료를 받아 실시되었다.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행정자료를 토대로 해당 지역 면(面)에 거주하는 임의로 선정된 독거노인 200명이다. 이때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거주 주택에 보호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가구(1인 가구)로 정의되었다.

설문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보건소 직원의 일대일 면담조사와 대상자 본인이 직접기입한 자기 기입식이 병행되어 실시되었다. 우선, 노인들의 인지기능 평가가 먼저 실시되었는데, 보건소 치매검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가 일대일 면접조사로 사용되었으며,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한 점수를 기준으로 각 해당 점수 이상이면 인지 기능이 정상으로 판단되어 이후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모든 설문조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되었다.

### 2. 조사도구

#### 1) 자살생각

자살에 대한 생각 척도는 Beck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SSI)[13]을 활용하였다. SSI는 원래 임상면접을 통해 임상가가 평정하는 3점 척도의 19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이나, 본 연구에서는 많은 피험자들에 대한 개별면담이 어려워 가능한 본래의 문항에 충실하게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변형하여 조사하였다.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보일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자살생각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SSI의 Cronbach's  $\alpha$ 값은 0.907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사별경험에 따른 비애 정도

사별경험에 따른 비애수준은 한국형 복잡성비애 척도(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Korean, ICG-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14]. 이 도구는 사별 후 나타나는 정상적이고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비애수준을 벗어나 지속적인 심리적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는 비애 반응을 측정하는 척도로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5점 척도(0-4점)로 분석 시 평균으로 계산이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별로 인한 고통이 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0.935였다.

#### 3) 사회적 지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 수준은 노인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Luben Social Network Scales(LSNS)의 한국어판 도구[15]를 활용하였다. Lee 등[15]의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결과 3개 요인(가족 및 친구 네트워크 그리고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지)으로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가족 및 친구 네트워크를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지와 함께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요인최저 0점에서 최고 4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족친구관계망과 상호의존적

사회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Cronbach's  $\alpha$ 값은 0.762이고, 가족친구관계망은 0.742, 그리고 상호의존적 사회지지의 Cronbach's  $\alpha$ 값은 0.886이었다.

### 3. 분석방법

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 상관성을 알기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살생각에 대한 사별경험에 따른 비애수준의 영향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R^2$ 의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이때 선행연구들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언급된 인구학적 요인 중 성별, 나이, 학력, 경제상황 등의 변수들 중 단순분석에서 자살생각과 통계적으로 상관성을 보인 학력과 경제수준만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1단계에는 통제변인만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비애수준, 3단계에서는 조절변인인 사회적 지지(가족친구관계망, 상호의존적 사회지지)를 투입하여 변인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설명력( $R^2$ )의 증가량과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정규분포 확인을 위한 왜도와 첨도 검증에서 왜도는 1.23, 첨도 1.34로 나타났다. 이는 Klein의 정규분포 기준인 왜도  $\pm 3$ 미만, 첨도  $\pm 10$ 미만을 충족하므로 정규분포 가정을 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변인 간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산출한 결과, VIF가 1.03~2.2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결 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25%, 여자 75%이었고,

평균연령은 76.56세이었다. 학력은 무학이 56.5%, 초등학교 졸업 27.0%, 중학교 9.5%, 고등학교 6.0%, 대학이상이 1.0%였다. 독거기간은 1년 미만 4.5%, 1-5년 미만 11.0%, 5-10년 미만 10.0%, 10-20년 미만 21.5%, 20년 이상 53.0%로, 대상자의 70% 이상이 10년 이상의 독거기간을 보였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93.5%로 거의 대부분이었다.

대상자의 비애수준은 평균 3.70점, 자살생각의 평균은 5.12점,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평균은 11.44점이었다. 사별대상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배우자라는 응답이 61.0%를 보여 배우자 사별경험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Table 1).

### 2.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은 비애수준( $r=0.162, p=0.029$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지( $r=-0.238, p=0.001$ )와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사회적 지지 중 가족친구관계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립변인인 비애수준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인 가족친구관계망과 상호의존적 사회지지 모두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2).

### 3.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독거노인의 비애수준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친구관계망과 상호의존적 사회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 1) 상호의존적 사회지지 조절효과분석

1단계에서는 학력( $\beta=-.14, p=.047$ )과 경제수준( $\beta=-.20, p=.006$ )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2단계에서는 비애수준( $\beta=.13, p=.083$ )이 자살생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단계의 조절변인인 상호의존적 사회지지( $\beta=-.25, p<.001$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비애수준과 상호의존적 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4단계에서는 상호작용항( $\beta=-.24, p=.023$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각 단계별 설명력은 1단계의 6.2%에서 7.8%, 13.9%, 16.4%로 그 설명력이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비애수준과 상호의존적 사회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Table 3).

상호의존적 사회지지의 조절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 상호의존적 사회지지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낮음’과 ‘높음’으로 구분하여 자살생각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했다. 상호의존적 사회지지가 ‘높음’의 경우는 사별경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 반면, 상호의존적 사회지지가 ‘낮음’의

경우는 사별경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 1).

## 2) 가족친구사회관계망 조절효과분석

1단계의 경우, 학력과 경제수준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하였다. 2단계에서의 비애수준( $\beta=.13, p=.083$ ), 3단계 가족친구관계망( $\beta=-.11, p=.148$ ) 그리고 4단계의 상호작용항( $\beta=-.24, p=.067$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4단계에서 비애수준과 가족친구관계망의 상호작용항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하지 않아 비애수준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가족친구관계망은 조절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Table 4).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0)

Variables	N(%)
Gender	Male 50(25.0) Female 150(75.0)
Age(yr)	Mean±SD: 76.56±5.92
Education	≤Elementary 167(83.5) Middle school 19( 9.5) High school 12( 6.0) ≥College 2( 1.0)
Living alone(yr)	<1 9( 4.5) <1-4 22(11.0) <5-9 20(10.0) <10-19 43(21.5) ≥20 106(53.0)
Bereaved subject	Spouse 122(61.0) Children 20(10.0) Relative 12( 6.0) Friend 11( 5.5) Other 15( 7.5) Non-response 20(10.0)
Bereavement experience level	Mean±SD 3.7±7.33
Social support	Mean±SD 12.3±8.04
Family and friends network	Mean±SD 8.7±6.14
Interdependent social support	Mean±SD 3.6±3.26
Suicidal ideation	Mean±SD 5.1±6.29

\* Data are presented as Number(%) and Mean±SD

Table 2. Correlation Matrix for Key Variables

Variables	1	2	3
	r(p value)		
1. Family and friends network	1		
2. Interdependent social support	0.409(<0.001)	1	
3. Bereavement experience	-0.106(0.153)	-0.029(0.697)	1
4. Suicidal ideation	-0.126(0.076)	-0.238(0.001)	0.162(0.029)

P value from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Interdependent Social Support

Variable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eta$	t	p	$\beta$	t	p	$\beta$	t	p	$\beta$	t	p
(constant)		6.47	.000		5.74	.000		6.51	.000		6.46	.000
Economic level	-.20	-2.78	.006	-.18	-2.48	.014	-.18	-2.50	.013	-.19	-2.70	.008
Education	-.14	-2.00	.047	-.14	-1.94	.054	-.10	-1.45	.148	-.11	-1.59	.114
Bereavement experience(A)				.13	1.74	.083	.12	1.73	.086	.28	2.86	.005
Interdependent social support(B)							-.25	-3.56	.000	-.17	-2.21	.029
(A) * (B)										-.24	-2.30	.023
$R^2$		.062			.078			.139			.164	
$\Delta R^2$		-			.016			.062			.025	
F(p)		5.90(.003)			4.99(.002)			7.16(<.001)			6.92(<.001)	

Table 4.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Friends Network

Variable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eta$	t	p	$\beta$	t	p	$\beta$	t	p	$\beta$	t	p
(constant)		6.47	.000		5.74	.000		5.94	.000		5.73	.000
Economic level	-.20	-2.78	.006	-.18	-2.48	.014	-.17	-2.37	.019	-.18	-2.52	.013
Education	-.14	-2.00	.047	-.14	-1.94	.054	-.13	-1.82	.070	-.13	-1.87	.063
Bereavement experience(A)				.13	1.74	.083	.12	1.61	.109	.31	2.44	.016
Family and friends network(B)							-.11	-1.45	.148	-.04	-0.49	.622
(A) * (B)										-.24	-1.85	.067
$R^2$		.062			.078			.088			.106	
$\Delta R^2$ (p)		-			.016			.011			.017	
F(p)		5.90(.003)			4.99(.002)			4.30(.002)			4.17(.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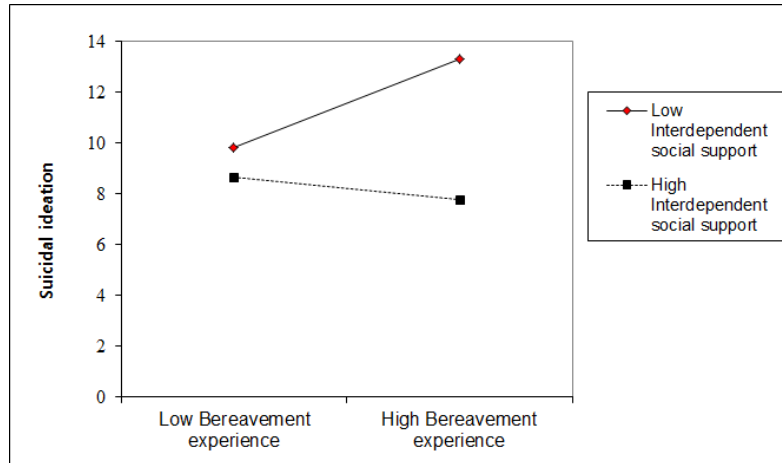


Fig. 1. Interaction with bereavement experience and interdependent social support on the suicidal ideation

## 고찰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비애수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친구관계망과 상호의존적 사회지지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인구학적 변인 중 학력과 경제수준을 보정하였다. 우선, 비애수준은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독거노인의 사별 후 비애수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본 Lee[2]가 비애수준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고 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Yoo[16]는 농촌지역의 사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별은 정서적 상실감, 우울, 건강악화 등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농촌이라는 지역사회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즉, 농촌은 이웃이나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높고, 노령까지 생산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들에게 일방적인 지지 및 지원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상호의존적 지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임파워먼트적 관점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른 결과의 연구들도 있다. 즉, 사별경험이 자살의 위협을 증가시키며, 자살생각 뿐 아니라 자살 성공률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이다[17]. 또한 한국노인의 자살생각 관련요인을 연구한 Kim[6]은 배우자의 부재나 상실로 인해 홀로된 노인들이 자살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홀로된 남성 노인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동거가족이 없어 가족지원체계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결여될 경우 자살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였다. McIntosh[18]는 배우자와의 갑작스러운 사별의 경우, 그리고 남자노인의 경우 자살의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남성이 사별 후 6개월 이내에 자살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사별경험 후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서적 어려움으로 우울감이 가장 빈번했으며, 장기 추적연구결과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 발병률이 대략 30%로 높았고, 그 중 15%는 중증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성 증가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노인의 부정적 스트레스요인과 자살생각에 대해 연구한 Park[19]은 부정적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인들에게 있어 신체적 질병과 가까운 이의 상실(other losses)이 가장 보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사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연구들은 연구대상이나 척도 등 다양한 조건들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이나 척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의 경우, 상호의존적 사회지지는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반면, 가족친구관계망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고립과 사별로 인한 외로움, 지지체계의 부족 등이 노인들의 자살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이라고 밝힌 연구[20]와 지역사회 지원 및 개입이 노인 자살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요인이라는 연구[21]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사회적 지지 중 지인 및 친구 지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연구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노인 환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 기반이 없을 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22]. 더 나아가 노인들은 자녀와 친구관계에서 갖는 정서 및 도구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서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를 관계유형별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본 Yim 등[23]과 독거노인의 자살 관련요인을 살펴본 Nan과 Lee[24]는 가족 및 친척의 지지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줄어 든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친구 관계망의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상이 독거노인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상호의존적 사회지지는 기존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제공받는 도움[25]이라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차원을 넘어 상호작용을 강조한 사회적 지지라는 특징을 가진다. 더 나아가 자신이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타인을 위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이에 노인자살의 예방적 개입을 함에 있어 지역사회중심의 상호지지적 네트워크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지역자원의 접근을 증개하고 조력하는 지역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26].

셋째, 사회적 지지의 하위 변인 중 상호의존적 사회지지는 독거노인의 비애수준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가족친구관계망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즉, 상호의존적 사회지지가 높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별경험을 많이 인식함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대한 효율적 개입에 있어 무엇보다도 상호의존적 사회지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기능적인 적응을 하도록 하며, 노인의 경우 여러 스트레스 상황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사별은 슬픔, 죄의식, 후회, 혼돈감, 목적상실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반응을 초래하므로 심각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한다[27].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특히, 정서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별로 친구의 지지가 자살생각의 상관관계에 있어 완충효과가 있으며,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및 우울증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28]. 또한 가족 간의 결속력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가족과의 연대감이나 지지가 노인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라고 하기도 하였다[28]. Park과 Chun[29]은 스트레스나 상실 등을 경험할 때 충분한 지역사회 사회적지지 기반이 유지되지 못한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무기력해지고, 충동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살생각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재가노인의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한 Lee[30]는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과의 관련성 연구가 사회적 지지와 자살생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만 보고자 하였거나, 세분화하지 않은 사회적 지지의 개념때문에 일관된 연구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즉,



농촌사회와 같이 동네에서 받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요소이고 비애수준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조절효과가 있으므로 독거노인이 받는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것이고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과 친지 등에 초점을 둔 사회적 지지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유지되는 사회적 지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사별경험으로 인한 비애수준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에도 조절하는 효과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어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요 약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비애수준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및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독거노인의 비애수준과 자살생각 간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중 상호의존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을 감소시켜 실제 자살로 이어지는 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 특히, 상호의존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The elderly statistics. 2015. [cited 2017 April 15].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2. Lee HK.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ef level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bereaved elderly who are living alone—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16;44(1): 24-47 (Korean)
3. Draper B. Attempted suicide in old age. *Int J Geriatr Psychiatry* 1996;11(7):577-587.
4. Bedford VH, Blieszner R, editors. Handbook of Aging and the Family. Westport CT. Greenwood Press. 1995.
5. Bae JH.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09;44:46-69 (Korean)
6. Kim HO, Choi YS, Lee JH, Seo AR, Park KS. The Association between Hopelessness, Social Support and Community Integration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Living Alone. *J Agric Med Community Health* 2016;41(4): 195-204 (Korean)
7. Kawachi I, Berkman LF. Social ties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Bulletin of the New York Academy of Medicin* 2001;78(3):458-467
8. Chang SJ. Personal growth through spousal bereavement in later lif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013;65(4):165-193 (Korean)
9. Conwell Y, Waite L. Measuring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using multiple indicators from NSHAP study. *J Gerontol. Social Sciences* 2009;64B:i38-i46
10. Fitzpatrick R, Newman S, Archer R, Shipley M. Social support, disability and depression: a longitudinal study of rheumatoid arthritis. *Soc Sci Med* 1991;33(5):605-611
11. Kim JY, Choi YS.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older people in local small c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15(4):208-219 (Korean)
12. Son JM, Byun SH. Effects of spouse bereavement in old age on emo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5;15(9):233-242 (Korean)
13. Beck AT, Kovacs M, Weissman A.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 Consult Clin Psychol* 1979;47(2): 343-52.

14. Nam I. Predictors of Complicated Grief among Korean Older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15;35(1):35-50 (Korean)
15. Lee KW, Kim SY, Chung WB, Hwang GS, Hwang YW, Hwang IH.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lubben social network scale. *Korean J Fam Med* 2009;30:352-358 (Korean)
16. Yoo HJ. Successful aging of the widowed elderly women in rural areas.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07;27(3): 617-634 (Korean)
17. Latham AE, Prigerson HG. Suicidality and bereavement: complicated grief as psychiatric disorder presenting greatest risk for suicidality.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2004; 34(4): 350-362
18. McIntosh JL. Suicide prevention in elderly (age 65-99).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New York Spring* 1995;25(1):180
19. Park MJ. Negative life stressor and suicide ideation in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compensatory and buffer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09;32:199-214 (Korean)
20. Chang SJ. A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network trajectory among widowed middle and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11;31(4):1083-1101 (Korean)
21. Shu WJ. *Social work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eventing suicide in the elderly: with special reference to factors affecting on elderly suicide*. [dissertation]. Pusan.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5 (Korean)
22. Maren S. Synaptic mechanisms of associative memory in the amygdala. *Neuron* 2005;47(6): 783-786
23. Yim JY, Kim HY Youm YS.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conflict in different types of relationships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young-old and the old-old.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6;35(3):645-657 (Korean)
24. Nam HJ., Lee SG.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in urban and rural areas, its related factors. *J Agric Med Community Health* 2017;42(3):145-154 (Korean)
25. Park JW.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1985 (Korean)
26. Lee HK, Kwon JH. The influence of grief level on suicidal ideation among bereaved single-household elderly-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015;69:193-213 (Korean)
27. Oh SG, Cho J, Kim YH, Kim JM. Influence of depression on psychological death anxiety of the elderly: moderate effect of self-esteem.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5;12(12):243-254 (Korean)
28. Park MJ. Negative life stressors and suicide ideation in community dwelling older adults-compensatory and buffer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009;32:199-214 (Korean)
29. Park BG, Chun SK. Effects of Mid-life Crisis on Suicidal Ideati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piritual Suppor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013;38:149-179 (Korean)
30. Lee EH.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for the elderly- focused on the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2011;15(2):369-392 (Korean)